

신앙

<목 차>

- | | |
|---------|---------|
| 1. 개관 | 5. 가신신앙 |
| 2. 공인종교 | 6. 기타신앙 |
| 3. 마을신앙 | 7. 결론 |
| 4. 무속신앙 | |

1. 개관

신앙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부딪히고 이러한 자연현상을 이겨내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기대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초자연적 존재를 모시는 신앙활동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과 생활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앙의 모습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활동은 한 마을의 역사와 경향, 모습, 전통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신앙을 공인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가신신앙 네 가지 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아 봉성리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 것이다.

봉성리의 신앙활동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공인종교의 경우도 농번기인 경우는 신도들이 거의 참석을 안하고 있고 포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신앙활동이 마을주민들의 삶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마을신앙은 儒式 마을제인 포제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기우제나 치성제, 조석제 등은 지금에 와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巫式 마을제인 당제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신신앙 역시 성주풀이나 귀양풀이를 제외하고는 지금에 와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에 지내던 신앙생활이 지금 생활의 기반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에 와서 거의 치러지지 않는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역시 봉성리를 알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위의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생활이 마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공인종교

공인종교란 국가나 공공단체, 사회단체가 인정한 종교를 뜻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공인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지칭한다. 봉성리의 공인종교는 이 중에서 천주교를 제외한 불교와 기독교가 있다. 천주교는 이 곳 봉성리 내에서는 큰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몇몇 천주교 신도가 있으나 이들은 보통 시내권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봉성리의 공인종교를 천주교를 제외한 불교와 기독교로 나누어 각 종교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구성원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공인종교가 봉성리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1) 불교

(1) 금천사

- ① 명칭: 금천사.
- ② 종파: 원효종.

- ③ 위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91번지.
- ④ 건물 : 법당 35평, 주택 30평, 소가 15평.
- ⑤ 연혁 : 1938년 금천동 소개동산에 개원, 1948년 4·3사건으로 소개 중화동 향사에 봉안, 1949년 신명동 재건으로 3247번지로 이설 봉안, 1950년 3291번지(현 위치)로 봉안.
- ⑥ 신도 : 8 ~ 90세대 정도로 봉성리 뿐만아니라 시에서도 30세대 가량 찾는다. 한림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신도가 있다.
- ⑦ 대표자 : 현재 수반 스님이 절을 운영하고 있다.
- ⑧ 운영 : 신도들의 헌금(교도비라고 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모자라는 부분은 스님이 자족해서 충당하고 있다.
- ⑨ 행사 : 부처님 오신 날을 제외한 기타 제의는 간단히 공양만 드리고 있다.
- ⑩ 금기사항 : 특별하게 금기사항을 두지 않는다.
- ⑪ 당과의 관계 :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기에 당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천사 신도들 가운데도 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 ⑫ 마을행사 : 마을에 불교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크게 하는 행사는 없고 마을에서 청년회 체육대회나 학교 운동회 등을 할 때 찾아가서 부조하고 함께 행사를 지내기만 한다.
- ⑬ 다른 공인종교와의 관계 : 서로 사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서로에게 제제나 비난을 하지는 않지만 서로 협력하거나 행사를 함께 진행하거나 포교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하는 일도 없다.

(2) 선운정사

- ① 명칭 : 선운정사. 창건주 스님이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서 나셨기에 선운사라는 절명을 쓰려고 했으나 선운사는 이미 쓰고 있어서 쓸 수 없기에 정자를 더하여 선운정사라고 명칭을 지었다.
- ② 종파 : 일붕 선교조

- ③ 위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608번지.
- ④ 연혁 : 1994년 보살이 선몽을 꾸어 절터를 잡고 개공식을 함.
1996년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식을 함.
2004년 종탑 개공식을 하고 2005년 종탑을 완성.
2005년 2006년 각각 한 개씩 7층 쌍석탑을 건설.
- ⑤ 신도 : 50~60세대 정도이고 큰 행사때는 150세대까지 방문한다. 신도의 대부분은 제주 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봉성리 사람은 거의 없다. 시를 제외하고 한림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는 편이다.
- ⑥ 월 기도 : 매달 음력 초하루, 초이레, 18일, 24일에 정기적으로 지낸다.
- ⑦ 대표자 : 송춘섭(현오 스님, 1955년 말띠) 외 보살 4분
- ⑧ 운영 : 신도들의 헌금과 기도비로 운영한다.
- ⑨ 다른 종교와의 관계 : 특별하게 함께하는 행사도 없고 서로 관심이 적다
- ⑩ 마을과의 관계 :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마을에 체육대회나 운동회, 경로잔치 등이 있을 때 가서 부조하는 것이 전부이다.
- ⑪ 건물 : 총부지 2500평 대웅전과 아래층 총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합쳐서 120평 정도이다.
- ⑫ 금기사항 : 특별하게 금기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당 같은 것도 배격하지 않고 있다.

2) 기독교

(1) 봉성교회

- ① 명칭 : 봉성교회
- ② 종파 : 대한예수교 장로회
- ③ 위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29-2번지
- ④ 건물 : 총 부지 549평, 교회건물 40평
- ⑤ 연혁 : 1976년 8월 1일 제주시 성안교회에서 개척

3년 전에 예전 위치(어도오름 중턱)에서 현재 위치로 옮김

⑥ 대표자 : 이승호 목사님으로 94년 7월부터 목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⑦ 신도 : 40명 내외로 대부분이 봉성리 주민들이고 시에서도 3~4명 다닌다.

⑧ 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에는 구역예배를 한다. 출석교인은 40여명이고 보통 주일예배에는 15명 가량, 구역예배 때는 10명 가량이 참여한다.

⑨ 행사 : 특별히 크게 행하는 행사는 없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등에 예배하고 간단하게 지내고 있다.

⑩ 마을과의 관계 : 예전에는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한림도서관까지 차량운행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그것이 번거로워서 교회 내에 아동도서를 배치하여 누구든지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도서구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동도서 3000여 권과 기타 도서, 성경, 교리 도서 역시 배치하여 대여하고 있다. 또한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봉성리 뿐만 아니라 시 까지 포교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을의 다른 공인 종교에 비하여 적극적인 포교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문학교에서 종교부분을 맡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일 교사를 하기도 하여 마을 인원과 많은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승호 목사가 가장 나이가 젊고 종교적 특성상 위와 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여하튼 여러 행사의 참여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과의 결속력이 생기고 그 결과 교회를 새로 지을 때(어도 오름쪽으로 새 길이 나는 관계로 교회를 옮기게 되어 교회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다) 많은 헌금을 받았다. 이 헌금은 그 당시 쓰나미 재해에 대한 구호금으로 기부했다.

현재 봉성리의 공인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은 지역까지 포교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에

거의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천주교 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봉성리 밖 시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을 다니고 있다. 봉성리의 공인종교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금천사가 마을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인다. 신도의 수도 다른 공인종교인 봉성교회나 선운정사에 비하여 많은 편이고 신도의 대부분이 봉성리에 거주하고 있어 이 마을에서의 대표적 공인종교는 금천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봉성교회 역시 이 마을의 신앙생활에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천사나 선운정사에서는 포교활동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마을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봉성교회에서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 대출 사업도 진행중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도 하며 마을 노인회관에서 진행했었던 한문학교에서도 종교부분을 맡아서 마을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물론 불교와 기독교 자체의 종교적 성향차가 이 현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하고 있는 봉성교회가 봉성리의 공인종교에서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봉성교회는 포교영역을 시에까지 넓혀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봉성교회로 이끌어 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봉성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된다. 선운정사의 경우는 다른 공인종교에 비해서 역사도 짧을 뿐더러 현재의 신도구성을 보더라도 신도의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 이므로 이 지역 신앙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천사나 선운정사는 거의 방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특별한 제제를 가하는 사항도 없다. 봉성교회 역시 타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이나 타 종교를 대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마을 행사같은 경우는 세 공인종교 모두 특별하게 마을행사에 앞서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저 음료수나 적정한 금액을 부조하여 마을에 주고 있다. 선운정사의 경우는 절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탑이나 종탑의 준공식)는 경로잔치를 열어 마을 분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였다고 했지만 그 역시 외부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곧 봉성리의 공인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로 이루어졌으며 불교에서는 금천사가, 기독교에서는 봉성교회가 주가 되어 봉성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운정사의 경우는 역사도 짧고 신도들도 외지인들이 많아서 봉성리의 신앙생활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의 주 생산원이 농업이기에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예배 때에 신도들의 거의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시로 많은 인구들이 빠져 나가면서 신도들이 줄고 있는 현상을 보여 현 농촌의 신앙생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3. 마을신앙

마을 신앙이란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신에게 기원하는 마을 공동적 신앙을 뜻한다. 이러한 마을 신앙은 마을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는 당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식 마을제와 유교식 제의 절차에 따라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식 마을제로 나뉜다. 이 항에서는 두 가지 마을제의 유형에서 유식 마을제-포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무식 마을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무속신앙항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 포제

봉성리의 포제는 도중에 한번 중단했었지만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포제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금기사항의 간축화, 제관의 간축화, 축 내용의 변화, 포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 변화 등의 사항을 통하여 과거의 포제와 현재의 포제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제명 : 포제(마을을 수호하는 신들의 모이는 날. 혹은 천제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나 천제는 일반적으로 축을 써서 하는 유교식 제의 일반을 모두

칭하는 말이기에 천제라고도 불렀다고 추측된다)

② 제신 : 포신, 토신 두 신위를 모신다. 봉성리의 경우에는 포제 때 모시는 신이 포신과 토신 둘로서 하나의 신만을 모시는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축문과 홀기의 내용이 긴 모습을 보인다. 포제단 역시 포신단과 토신단 둘 다 준비되어 있다.

③ 제일 : 정월 첫 정일에 지낸다. 그 기간에 마을에 상이 난다더가 하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제를 다음 정일로 옮겨서 치루기도 한다. 혹은 해일에 지내기도 한다(이를 혹정혹해라고 한다). 포제는 마을전체의 안녕을 바라는 제의라서 초정에 포제를 지내게 되면 그 해 마을이 우환없이 잘 지내겠구나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 여겼다.

④ 제장 : 포제판이(포제판이는 포제단 부지를 말하는데 2~3년 전에 포제단을 새로 하고 포제단 부지를 돌담으로 둘렀다. 또 바닥 전체에는 잔디를 깔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는 1000평(마을 공동 소유)가량으로 이 포제판이 안에는 포신단과 토신단이 위치해 있으며 그 외에 제관들이 합숙하고 기타 물품들을 넣고 보관하는 소가가 세워져 있다.

⑤ 제의관리 : 포제상회(향회)가 열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을 주민들이 포제에 제관으로 임명될 것을 꺼려 마을 유지들이 추천으로 제관과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제관에 선

정되려면 품행이 바르고 집안이 건실하며 성품이 올곧아야 했기 때문에 제관에 선정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또 제관을 선출할 때는 결혼을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가끔씩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선출되기도 했는데 그것



봉성리 포제단

역시 자랑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관이 번거롭고 영리가 생기지 않기에 많이 꺼려하고 있다.

⑥ 제비 : 과거에는 호당 일정액을 균등히 건었으나 최근 15년간은 ‘홍성제’씨가 혼자 부담하고 있다. 비용은 15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⑦ 기타 : 중간에 ‘포제가 미신이다’라고 하여 포제를 중단하였으나 1982~1983년도에 포제를 중단하고나서 마을에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의 변고가 생겨나자 포제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시 포제를 지내게 되었다.

⑧ 제관

㉠ 제관 자격 : 이장·향장(향장이란 마을의 큰 어른을 뜻하고 이장선출권이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중요사에 대한 의논권 등을 지닌 사람이다. 지금은 향장이 없어져서 이러한 역할은 이장과 개발위원장이 하고 있다) 등을 지낸 유지를 우선으로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 미혼자는 자격이 없었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렇게 제관이 되었을 시 그 집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과거에 먹을 것이 궁핍했던 때는 적극적으로 제관을 하려고 했으나(제관을 중심으로 음복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제관이 고되고 영리가 없어서 제관이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7년 이후에는 마을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제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장은 전사관, 향장은 초헌관, 개발위원장은 아헌관, 마을의 유지 중 한 명을 종헌관으로 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에는 마을이장이 초헌관, 개발위원장이 아헌관, 마을 동장 중 한 명이 종헌관을 하게 되었다.

㉡ 선출방법 : 향회 즉 포제상회를 통해 추천이었으나 점차 제관을 맡는 것을 꺼리게 되자 1987년 이후에는 마을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제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장은 전사관, 향장은 초헌관, 개발위원장은 아헌관, 마을의 유지 중 한 명을 종헌관으로 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에는 마을이장이 초헌관, 개발위원장이 아헌관, 마을 동장 중 한 명이 종헌관을 하게 되었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까지 선출한 후 나머지 제관은 집례가 정한다. 그리고 마을 청년회는 포제에 관련된 잡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부녀회에서는 포제의 제관들이 칩거하는 동안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였다.

㉞ 제관의 종류 : 봉성리의 제관의 종류는 12가지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알자, 대축, 찬자, 봉향, 봉오, 봉작, 전작¹⁾ 등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말을 사람이 없거나 한 경우는 사람을 줄이기도 하였다. 현재는 봉로, 봉향 등의 제관은 선출하지 않는다.

㉟ 합숙 : 원래는 7일 동안 정성을 들이나 지금에 와서는 3박 4일 동안 칩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도가칩(초가집으로 마을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집, 도가터라고도 하고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음)에서 3박 4일 동안 칩거하면서 몸을 닦았는데 일단 그 곳에 들어간 후에는 바깥출입을 금하여 마을에 나쁜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한때는 도가칩이 없어져서 가정집에서 합숙을 하기도 했는데 보통 부녀회장의 집에서 칩거하였었다. 최근에는 기간이 축소되어 포제판이 내의 집에서 1박2일 동안 칩거 후 마지막 날 새벽에 제를 지내 총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한다. 첫째 날에는 몸을 닦고 둘째 날에는 포제에 관련된 준비를 하며 마지막 날에는 12시부터 제를 시작하여 4시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 예행연습은 3회를 한다. 예전같은 경우는 금줄을 칠 때 마을 입구다른 곳과 연결되는 길, 통로)전역에 걸쳐서 쳤지만 지금에 와서는 도로가 발달되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이 치고 있다. 현재 금줄은 제를 지내기 3일

-
- 1) 초헌관 : 첫 잔을 드림
 아헌관 : 둘째 잔을 드림
 종헌관 : 셋째 잔을 드리고 신에게 토를 드림
 집례 : 흥기를 읽고 예를 총괄적으로 지휘함
 알자 : 헌관들을 인도
 대축 : 축문을 읽음
 찬자 : 집례의 진행을 도움
 봉작 : 잔을 받음
 전작 : 잔을 비워서 드림
 전사관 : 재물을 준비하고 차림

전부터 포제단에 가는 길의 양쪽에(다른 마을로 통하는 길) 치고 마을회관 정문에 치고 포제단에 친다. 금줄은 제관들이 마을회관에서 포제단에 갈 때, 즉 칩거를 하러 갈 때 금줄을 건어서 불사른다. 금줄을 만드는 적은 요즘에 구하기 힘들어 맹월의 논에서 짚을 구해서 하거나 산디를 갈기 시작한 후로는 산디로도 금줄을 하기도 한다. 금줄을 건어낸 것은 불태워버린다. 보통의 새끼줄은 오른쪽으로 감기지만 금줄은 특별히 왼쪽으로 꼬아 만든다.

⑩ 제물

① 메 : 곧메(쌀메) 2, 조메 2 (곧메나 조메는 전용제기로 만드는데 일반 밥 짓는 것과는 달리 친다-수증기로 메를 친다)

② 희생 : 토신과 포신에게 각각 돼지 한 마리씩을 날 것으로 올리는데 끓은 물에서 털을 뽑는다. 배를 갈라 내장을 빼고 통째로 올린다.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도살장의 전문가를 불러 포제단 내에서 손질한다. 돼지의 자세는 바로 세워 돼지무릎을 굽혀 바친다. 곧 포신과 토신에 대해 절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돼지머리는 북쪽(오른쪽)을 향한다. 닭도 날 것으로 올리는데 털을 뽑고 내장을 빼고 바로 세워 바친다. 희생하는 돼지는 제사를 하는 아침에 포제단 내에서 희생하는데 그 때의 피는 신성한 피라하여 피를 봐도 괜찮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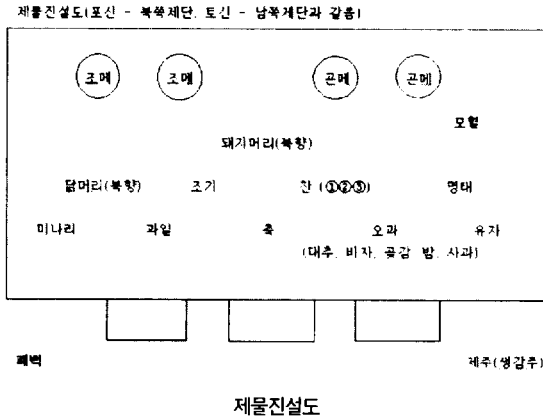


포제관이 안에 있는 집

③ 생선 : 원래 옥돔을 날것으로 올리나 옥돔을 구하기 힘들 때에는 옥돔 대신 조기를 올리기도 한다. 이 조기는 상하지 않게 내장만을 빼내고 다른 손질은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생선으로는 명태 마른 것을 올린다.

④ 채소류 : 미나리를 날것으로 올린다.

- ㉔ 제주 : 곶을 삶지 않고 생감주를 올린다.
- ㉕ 실과 : 곶감, 밤, 대추, 유자, 사과, 배 등 5~7가지를 올린다.
- ㉖ 폐백 : 일반 솜실을 한 필 올렸다가 나중에 불사른다.
- ㉗ 모혈 : 돼지머리의 털과 피를 접시에 올린다.
- ㉘ 제물진설도 : 위치는 북향으로 진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제단이 서쪽으로 향해 있어 제물들은 북쪽을 향하게 한다. 제관이 있을 때에는 닭, 돼지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한다. 오른쪽이 포신 왼쪽이 토신이고 토신이 상단, 포신이 하단이다.



⑩ 제차 : 12시를 넘기면 제를 지낸다. 다른 제와 마찬가지로 청신(신을 초청하는 의례), 식신(차려놓은 음식을 드시게 하는 의례), 송신(신을 보내는 의례)등의 순서로 지낸다. 처음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한 후 잔을 올리고, 메를 친다. 그 후 철변을 하고 지방을 태운다. 제 지내는 시간은 약 35분 정도 걸린다. 과거에는 제를 지낸 후 제물을 제관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으나, 현재에는 제를 보는 사람이나 노인회관 등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수고를 했다는 뜻으로 마을일을 많이 맡아보는 사무장이나 마을 회장, 임원들에게 나누어 보내고 있다.

⑫ 제복·제기 : 예전의 경우에는 마을의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는 제관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청도포가 다 있어서 제관을 맡았을 때 한번에 맞추어서 입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의 것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것이 없어지고 함께 맞춘 청색의 두루마기식 도포를 입는다. 과거에는 제관 직을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벌씩 가지고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개발 위원장이 관리한다. 제기는 마을회관에 따로 보관되어 포제 때만 사용한다.

⑬ 금기 : 일체의 비린 것을 피한다. 상이 나지 말아야 한다. 밖에서 개가 죽은 것, 교통사고가 난 것 등 피를 보면 안 된다. 집밖 출입을 자제하였다. 또한 제물을 만들 때 여자는 제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므로 그 대신 전사관이 모든 제물을 직접 만든다. 부녀회에서 제관들이 몸을 닦을 때 음식을 제공하는 정도만 한다.

⑭ 축문과 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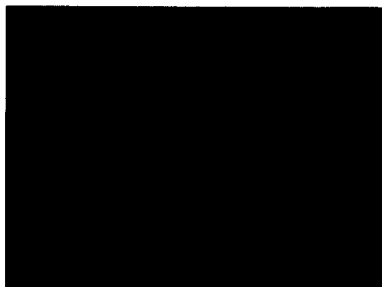
① 흘기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與 平身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進初獻官之在 白 有司謹具 請行事 四拜 獻官及諸位者 皆四拜 搯笏鞠躬拜 與 拜 與 拜 與 拜 與 執笏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者酹神 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三上香獻幣 俯伏與 執笏 平身 次諸 土神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三上香獻幣 俯伏與 執笏 平身 引降複位 行初獻禮 謁者引初 獻官 諸尊所西向立 執尊者 舉奠酌酒 引諸酹神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 爵 俯伏與 小退 跪 讀祝 俯伏與 執笏平身 次諸 土神神位前 西向立 跪 搯 笏 獻爵 俯伏與 小退 跪 讀祝 俯伏 與 執笏平身 引降複位 行亞獻禮 謁者 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執尊者 酌酒 引諸尊所 西向立 執尊者 酌酒 引 諸酹神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爵 俯伏與 執笏 平身 次諸 土神神位前 西 向立 跪 搯笏 獻爵 俯伏與 執笏平身 引降複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 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諸尊所 西向立 執尊者 酌酒 引諸酹神神 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爵 俯伏與 執笏平身 次諸 土神神位前 西向立 跪

搯笏 獻爵 俯伏與 執笏平身 引降復位 飲福受俎 謁者引初獻官 諸飲福位
西向立 跪 搯笏 執事者 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卒爵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虛爵 執事者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 虛俎 俯伏與
執笏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 及諸位者 皆 四拜 搯笏鞠躬拜 與 拜 與 拜
與 拜 與 執笏平身 撤邊豆 四拜 獻官及諸位者 皆 四拜 搯笏鞠躬拜 與拜
與 拜 與 拜 與 執笏平身 望燒 謁者引初獻官諸 望燒位 南向立 焚幣 蓋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禮畢出 獻官以下以次出 執事者 俱伏拜位 四拜 祝以
下 皆 四拜 鞠躬拜 與 拜 與 拜 與 拜 與 平身禮畢出

㉞ 축문

㉟ 포신축문



포신축문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 某日 干支
初獻官 姓名

敢昭告于

醑神伏以

於赫明神 聖恩明德 吾鄉鳳城 四百
餘戶 設村之後 數百餘年 無窮發展
于今至矣 庇護人物 恭承至誠 所願祈
禱 神其保佑 轉禍為福 消災致祥 疾

病豫防 橫厄除去 車輛通行 無故無項 營農機械 無事安全 先進技術 高品生
產 適期出荷 經濟活成 未成少年 善導教養 教育獎勵 人材輩出 隣隣和睦
人和團結 地域開發 生活向上 吾鄉庶民 萬福咸臻 所願成就 萬事太平 謹以
牲幣體齊 粢盛庶品 式陳明薦于神尚

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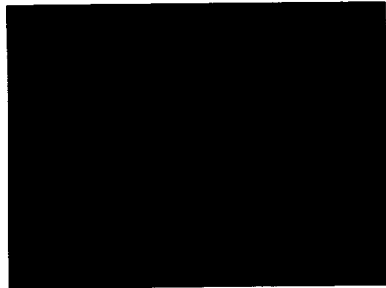
㊱ 토신축문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 某日 干支 初獻官 姓名

敢昭告于

土神伏以

於赫明神 廣施明德 漢拏靈氣 分脈
 來龍 山川田野 均衡分布 部落形成
 里名鳳城 四百餘戶 生活安定 伏惟明
 神 施恩之德 庇護人物 恭承至誠 所
 願祈禱 神其保佑 雨順風調 時和年豐
 五穀豐登 養畜蕃庶 特殊作物 所得增
 大 柑橘産業 經濟活成 環境保存 水
 質向上 土壤補強 病虫豫防 産業諸害 未然防止 地域開發 生活向上 隣隣和
 睦 家家同樂 所願成就 萬事太平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于神尚
 饗



토신축문

봉성리의 마을제는 거의 이 포제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마을에 비해서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지난 포제의 축문이나 흥기가 연도별로 잘 보관되어 있었고 동시에 축문과 흥기의 한자에 한글토가 달려있거나 해석이 되어 있어 자료의 정리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2~1983년에는 이러한 마을제인 포제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하여 관두었다는 것을 보면 이 봉성리 지역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제의가 서서히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포제를 관두고 동시에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계속 생겨나면서 다시 포제를 지내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봉성리의 포제는 포신과 토신 두신을 함께 모시는데 축문의 내용을 보면 포신축문은 마을 전반적인 기원을 담은 내용이 많고 토신축문은 마을 전반적인 기원을 담은 것도 있지만 보통 농사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것은 봉성리 포제에서 모시는 두신 중 포신은 마을전체의 수호신으로 보고 토신은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져서 함께 모시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축문의 내용이 비슷해졌다.

현재에 들어오면서 포제의 형식도 많이 변화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그 절차

가 많이 간단해 졌으며 현재에 맞는 예와 절차를 조정하였다. 물론 이것이 포제의 전통이 사라져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현재 생활에 과거의 마을제인 포제가 융합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축문같은 경우 과거에는 거의 일관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현대생활에 맞는 축문을 지어 하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가 덜나게 해달라는지 새로운 품종이 잘 자라게 해달라던지 하는 내용들이 축문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듯이 봉성리의 포제는 현대와 융합하면서 그 모습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금줄설치나 금기사항들이 많이 줄어들고 제관들의 수가 줄어들고 제관을 꺼리는 상황, 포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고 그에 대한 인식도 줄어가는 상황을 보면 전통신앙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4. 무속신앙

각 마을에는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비는 당이 여러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많은 곳은 5군데까지 있는데 봉성리의 내에 분포되어 있는 당은 한군데이다. 봉성리의 분향당에는 매인심방이 없어서 그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또 매인심방이 없어서 심방없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비념을 하는 경우도 많다. 봉성리에서는 당에서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무식 마을제는 거의 없고 개인적인 비념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봉성리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봉성리의 구머리당(할망당)에는 안가고 예전에 있었던 곳의 당으로 그대로 다니는데 어린비당과 비내리당이 그것이다. 하지만 봉성리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은 구머리당에 다닌다. 이는 당은 다니던 사람이 안다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때문에도 그렇고 분향당이란 그 마을을 보호하고 돌보는 신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예전 당에 그대로 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봉성리 구머리당과 관련한 금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송씨할망과 문씨하르방의 이야기로 돼지고기를 올릴 수 없는 당이 있지만 여기는 송씨할망을 모시고 있기에 돼지고기도 올린다. 다른 지역(비내리 당)의 당 같은 경우에는 문씨할아방과 송씨할망을 따로 모시고 있는데 이때는 돼지고기를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는 것을 많이 중요시 여긴다. 비내리당은 문씨 할아방을 크게 모셔서 당을 잘 관리하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할망당은 관리가 소홀하여 할망당을 잘못건들면 액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1) 본향당

① 명칭 : 본향당(할망당), 구머리당

② 당신 : 송씨 할망, 문씨 하르방

③ 당에 얽힌 이야기 : 송씨할머니가 돼지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 하셨는데 문씨 할아버지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송씨할머니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왕에게 진상하러 가는 돼지를 사려하자 나그네는 그건 안되고 돼지 털을 태우는 냄새는 맡게 해주겠다고 하여 송씨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고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씨할아버지는 그 고약한 냄새를 맡고 왜 돼지를 먹었냐고 혼욕을 했다. 그리고 자기말을 안 듣는 송씨할머니 때문에 문씨 할아버지는 한라산에 올라가 버렸다. 할머니가 빌고 빌어서 1년에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가 정월대보름이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당제를 정월대보름에 지내게 되었다.



구머리당

④ 형태 : 구물동에 위치하고 있다. 발의 한 귀퉁이에 있는데 당목은 팽나무로서 큰 편이 아니다. 예전에는 어른 한아름도 넘는 두께의 팽나무가 당

목이었으나 태풍으로 꺾어져 버리고 그 옆에 다시 팽나무가 자라자 그것을 그대로 당목으로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대인 심방이 없어서 당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의 주변에는 술병과 기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돌단도 형클어져 있다. 풀도 무성하게 자라있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제일 : 정월대보름(송씨 할머니와 문씨 할아버지의 상봉일). 제일은 택일해서 가는데 보통 포제가 끝난 다음에 택일은 한다. 정월, 2,3,4월 거의 아무 때나 날을 봐서 가지만 보통 포제가 끝난후 정월에 많이 간다.

⑥ 제물 : 특별하게 금기가 없어서 사탕이나 과자를 올리기도 한다. 또 자신의 집에서 제를 지낼 때 썼던 음식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

㉠ 메 : 큰메 3개 큰메 2개, 작은 사발메 1개

㉡ 떡 : 당다데(돌래떡)

㉢ 어류 : 옥돔 2마리 보통생선

㉣ 육류 : 돼지고기를 적해서 올리거나, 토막을 내서 올리기도 한다. 돼지고기적갈(송씨 할머니), 꺾질을 벗긴 닭 3~4마리(문씨 할아버지) 자주가시는 분들은 자기 집 제사 때 올렸던 적갈을 올리기도 함. 당에 치르는 의식이 동쪽지방보다 간소하다.

㉤ 과일류 : 3~5종류. 사과, 배, 유자, 귤, 감, 대추 등

㉦ 제주 : 제주는 꼭 준비해서 가는데 특별한 술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주를 준비한다.

㉧ 향 : 향은 일반 향을 피우는데 정성을 들여 향나무를 다듬어 하기도 한다.

㉨ 쌀 : 과거에는 집에서 재배하는 곡식을 한 줍씩 모두 모아 당 주변에 뿌렸는데 곡식의 씨를 할망당에 먼저 선봉하여 곡식이 잘 여물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생쌀을 가져가서 뿌리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곡식을 가져다가 뿌리며 곡식이 잘 여물게 빌기도 하였다.

㉩ 계란 : 삶은 계란 3개를 곱게 까서 올린다. 생계란 3개를 당에 던져 깨뜨리는데 이는 목숨 3개를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 채서(차사) 사람

잡아가는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차사가 데리고 간다. 당에 잘못 걸리면 허물도 나게 하고 미치광이도 되게 하니 조심해야 한다. 차사는 술과 생계란을 좋아한다고 해서 본당차사의 액을 막기 위해 빨강, 노랑, 파랑의 명주실을 놓고 고기 날것과, 날계란 3개를 올린다. 기도한 후에 생계란을 던져서 깨뜨리는데 이는 차사에게 목숨 3개를 바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① 지물 : 흰실과 지전을 쓰는데 명실을 걸어놓기도 하고 안걸기도 하지만 지전을 꼭 마련해서 가야 한다. 지전은 구멍을 뚫어서 당나무에 건다. 명실의 경우는 당목에 걸어놓기도 하지만 수저에 걸쳐놓기도 한다.

⑦ 제차 : 제물을 진설한 후 향을 피운다. 절과 기도를 드리며 기원을 하고 제가 끝나면 소지 3장을 불사른다. 당제의 순서는 간단히 제물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절하고 기도한 다음 제가 끝나면 소지(백지 3장)를 불사르는 것으로 마친다.

⑧ 비념 : 집안 일이나 자식 일을 기원한다. 이렇게 당제일에 맞추지 않고 개인적인 비념(집안에 안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거나 복잡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이들이 이유없이 아프다거나 자식들의 시험, 군대입대 등의 일이 있을때 많이 찾는다)을 빌때는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없고 개인에 따라 다른데 돼지를 삶아서 3, 4개(껍질을 다 벗기는데 이는 부스럼, 허물나지 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를 준비해가기도 한다.

⑨ 음복 : 이렇게 비념을 한 후에는 케(케같은 경우 가로 20~25cm 세로 25~30cm 정도의 삼각형의 평평한 돌로 덮어둔다)에 묻는 것 말고는 도로 싸서 돌아간다. 이러한 개인적인 비념을 할 때는 심방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은 당에 메인 심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의 관리가 소홀하여 풀이 무성하고 주위에는 비념을 하고 난 후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⑩ 금기 : 몸이 비리거나 마을이 비리면 가지 않는다. 당에는 밤에 가는데 본향에 오갈 때 주위에 사람을 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⑪ 기타사항 : 현재 당에 다니는 사람은 봉성리 주민의 1/3정도라고 하기도



계

하지만 반이 넘게 다닌다는 사람도 있어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수를 볼 때 아직까지 당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신앙이 아직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을 다니는 사람이 보통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않기에 앞으

로 봉성리의 당신앙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당에 다니던 사람이 당을 다니지 않으면 몸에 부스럼이 나는 등 몸이 아프고, 집의 아이가 아프게 되는 등의 안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당을 계속 다니게 된다고 한다.

제보자들의 말이 서로 달라서 당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수는 많이 줄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당에 메인심방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당의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더욱 그러한 상황이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봉성리 내의 당은 구머리 당 하나로 두세개 정도 위치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봉성리 사람들이 당에 대한 규제도 적은 편이고 그 절차나 행위에 있어서도 자유롭거나 간략한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봉성리의 당신앙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신신앙

가신이란 집을 단위로 하는 가족의 번창을 돕고 액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이다. 따라서 가신신앙은 이러한 가신들을 모시는 것으로 앞서서 살펴보았던 마을제처럼 마을전체를 보호하고 돌보는 신을 모시는 것과는 달리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개인적인 면을 띤다. 보통 가신신앙은 집안의 신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을 주로 맡는 주부가 주를 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방을 집으로 불러서 행하기도 한다.

1) 문전제

음력 초월에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고 기타 그 해에 있을 가정행사나 가족의 일이 아무 탈없이 잘 이루어지라고 무당을 빌어다가 굿을 하는 것을 말한다. 크시라고도 한다. 오랜전부터 계속 지내왔으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없어지다가 요새에 와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보통 12월 달에 택일(택일하는 사람에게 가족의 나이와 이름을 적어서 보이면)해서 정해진 날의 일주일 전 쯤에 문전에 곱줄을 쳐서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집안에 입구에 치는데 이 때의 곱줄은 보통 새끼줄과 달리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꼬아서 만든다. 제물은 지전, 미녕(면화에서 실을 뽑아 만든 천의 일종), 떡(이때 하는 떡은 평소에 해먹는 떡과는 달리 심방이 주문한 떡으로 들레떡 등 대여섯 가지를 올린다), 국도 올렸는데 국 같은 경우는 고기국, 미역국 등을 했다.

생선(조기, 옥돔 2~5마리), 과일(사과, 유자, 배 등의 과일을 올렸다. 예전에는 과일이 매우 귀해서 유자같은 것도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 곤메 7~8 그릇(기도를 한 후에 신방이 말하면 나중에 올림), 미나리, 콩나물, 고사리 등을 올린다. 제 지낸 후에는 음복을 하고, 지방을 불살라서 지봉 위로 던진다. 심방에 따라서 대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봉성리에서는 기르는 작물이나 가축 등을 위하여 특별하게 따로 굿이나 제의를 지내지는 않았고 그런 것들은 문전제로 통합해서 했는데 문전제를 지내면서 오탁육축이 잘 되라고 빌기도 하고 구덕에 다양한 곡식이나 추수품 등을 넣어 고팡에 들어가는 시늬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곡식이 잘 여물고 창고가 가득차게 해 달라는 의미를 지닌다.

2) 토신제

토신은 집터의 신으로 울타리 안의 모든 일을 수호해주는 신이다. 신방을 부르지는 않고 택일하여 제를 올린다. 마을에서 글을 잘 아는 어른을 빌어다가 여남은 글자의 축을 고한다. 새벽이나 밤에 집밖에 병풍을 치고 제를 올린다. 조메 3개, 곤메 3개 와 시루떡, 대추, 밤, 옥돔, 명태, 미나리, 과일을 올리고 폐백으로 무명이나 베 한필씩을 올린다. 제주는 생감주를 올리는데 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날 것으로 올린다.

3) 조왕제

음력 2~3월에 집에서 지낸다. 제물은 문전제와 비슷하다.

4) 귀양풀이

장례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사자고양의례이다.

5) 푸다시

잡귀가 범접하여 앓은 병을 치료하는 무의이다.

6) 애기비념

애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비는 소규모의 무의이다. 때 3그릇, 깨끗하게 찢은 미역 3접시, 찬물을 꺾어놓은 소지(보통 하얀 종이를 쓴다)와 함께 올린다. 실과 돈도 함께 올린다.

7) 산신제

주로 소고기를 올린다. 깨끗한 과일, 미나리, 시루떡을 올리고 제주는 소주를 올린다. 깨끗한 과일, 소고기나 바닷고기를 올리는데 주로 소고기를 올린다. 미나리, 소주, 시루떡 등을 올린다.

8) 녀들임

아이가 높은데서 떨어지거나 깜짝 놀란 것을 보아 녀이 나갔을 때 녀들임을 한다. 특별한 제물을 올리지 않고 물과 쌀만을 올린다. 아이가 놀랐던 장소에 가서 녀들이는 사람의 옷을 들고 나이, 이름 등을 고하며 녀을 들인다. 버드나무 같은 걸로 녀들이는 사람을 때리고 콩이나 팥이 등을 맞추며(콩 같은 것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다) 굿을 행했는데 “수와나락 수와나락”이라며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였다.

9) 불찍앗이

불을 일으키는 귀신을 달래는 굿으로 보통 불이 난 후 다음날에 심방을 불러서 한다. 심방이 집을 둘러보고 허수아비를 사람모양으로 만든 다음 마구 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

10) 불도맞이

아기가 자꾸 아프거나, 죽거나, 잘 자라지 않을 때, 아기를 낳지 못할 때,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많이 행한다. 생쌀을 담은 사발 두개에 각각 동백나무를 꽂고 이어어머니에게 눈을 감고 사발 하나를 택하라고 한 후 택한 나뭇가지의 가지수를 보고 점을 친다. 불도맞이 전후 일주일 동안 대문에 금줄을 친다. 명진국할망과 저승할망이 있는데 명진국할망은 아이를 돌보는 할망이고 저승할망을 아이를 아프게 하는 할망이라서 저승할망을 달래서 떠나보내고 명진국할망을 모셔와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곳이다.

11) 성주풀이

집을 신축했을 때 하는 건축의례로 건축에 쓰인 재목의 목령을 쫓아내고 가택신을 모셔 앉히는 의례이다. 옛날에는 성주풀이를 하지 않으면 제를 지낼시에 조상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먼저 심방을 부르고 집을 지은 목수를 부른다. 실제 목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구해서 목수분장을 하게 한다. 개가죽 감투, 옷, 버선, 신 등을 신기고 목수 분장을 하게한 후에 집안구조물을 도끼로 살짝 찍으며 집을 짓는 행위를 한다. 이때 이 행위는 집을 짓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여러 재료들에 떨어왔을 지도 모르는 잡귀 등을 쫓아내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다른 제보자의 경우 이런 행위말고도 목수 분장을 한 사람이 심방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심방이 목수를 낚은 천 같은 걸로 씌워 잡는데 이 것 역시 집을 짓는 목수를 잡는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게 집을 짓고 얻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른 가신신앙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성주풀이의 경우는 지금까지 쪽 해오고 있다.

12) 백중제

8월 보름에 소 기르는 사람들이 소이터(흙굴아래)에서 나오는 물로 밥을 지어 냄비채로 올리고 한 해의 평안과 안녕을 빈다. 지금은 소이터라는 곳이 그 근처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이 백중제는 심방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간단하게 하였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13) 마누라풀이

천연두를 마누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천연두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하고 자 곳을 하였다. 이때는 곳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곤메, 국을 올리고 고기같은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곳을 치르고 나서 실제로 병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곳의 효험을 믿게끔 하였다.

14) 칠성풀이

집안에 안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칠성님(이때의 칠성은 뱀을 뜻한다)을 잘 못 건드려서 탈이 났다고 믿어 이때 칠성님에게 곳을 하기도 하였다.

봉성리의 가신신앙 역시 당신앙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사라져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성주풀이나 귀양풀이 등이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가신신앙의 전부이다.

6. 기타신앙

1) 방사탑



방사탑(암탑)



방사탑(수탑)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깊다. 마을의 기가 약한 곳에 액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세워진 것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방사탑 관련 제보자파악이 쉽지 않아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다. 알고 있더라도 금천사 앞쪽에 기가 나쁜 지형이 있었는데 그 나쁜 기를 억제하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다고하는 정도 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지형과 소나무가 모두 쓸려 버려서 지금은 볼 수 없다. 원래 방사탑이라는 용어를 제주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봉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방사탑은 암탑과 수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로간의 거리는 50m~70m정도이다. 수탑의 경우는 길가에 있는 밭의 들담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찾기가 쉬웠으나 암탑의 경우는 길가에 있기는 하지만 덩굴에 뒤덮혀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

제보자의 이야기로는 수탑은 꼭대기에 길쭉한 돌이 세워져 있었지만 4·3사건때 무너져 버리고 암탑의 경우도 가운데 비어있던 부분이 함몰되어 버렸다고 한다. 위치는 할망당 근처로 그곳이 기가 약한 곳이라며 나쁜 기운이

침범하기 쉽다면서 수탑과 암탑으로 그 곳을 막았다고 한다.

2) 호산나 기도원

봉성리 내에 있는 기도원이다. 하지만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이 기도원의 목적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일종의 포교활동이나 신앙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포교하러 가는 전도사들의 수련장소로 활동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호산나 기도원에 봉성리 사람이 찾아와서 신앙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기도원의 관리자 역시 봉성리의 신앙활동에 기도원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봉성리 신앙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신앙이 마을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신앙이란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초월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당연히 신앙을 지닌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 행해지면서 이러한 신앙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이 사람들의 생활에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봉성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인종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봉성리의 공인종교가 다른 민속신앙에 비해서 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당신앙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으며 포제도 꾸준히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속신앙이 마을의 나이든 사람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어린이, 청년층의 민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민속신앙(특히 포제에서)의 제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속신앙의 영향력이 줄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공인종교(특히 기독교)인 경우 신자구성에 있어서 나이가 적은 층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 종교지도자가 마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곧 상대적으로 공인종교가 민속종교보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 신앙이 현대생활과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제의절차의 간소화, 간략화는 민속신앙이 영향이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이 현대생활과 융화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변화의 주기가 빠른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제의절차를 그대로 할 수는 없기에 현대생활에 맞추어 간략화되고 간소화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포제의 축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축문의 내용이 현대생활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재배하지 않았던 특용작물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포제가 마을 전반에 대한 평화와 안녕, 풍요를 비는 제의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포제 등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다. 각 신앙에 따

른 금기사항이나 규제, 규칙, 제의날, 제의절차 등은 신앙생활 자체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은 옛 선인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었고 낙관적인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동시에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서 말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을사람들의 실생활과 많은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전승은 마을의 전통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봉성리의 신앙생활도 이 지역만의 특색을 띠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공인종교에서부터 마을, 무속, 가신, 기타 신앙에까지 각 신앙의 모습은 마을의 삶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잡혀있기에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봉성리의 현재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